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대학 교양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

A research for development of liberal subjects related to
Home Economics in higher education curriculum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최정임

교수 신상옥

Dept. of Home Economics, Chung-Ang Univ.

Master : Jeong-Yim Choi

Dept. of Home Economics, Chung-Ang Univ.

Professor : Sang-Ok Shin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 (1) examine current curricula related to home economics in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2)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on fields and contents related to home economics in college-level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professors, (3) provide the findings to make recommendations for development of liberal subjects related to home economics in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This study was conducted by means of the review of literatures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instruments for the survey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one was for students and the other was for professors. They included items of needs about 6 fields related to home economics and 8 contents each, and there were items of reasons for needs about each fields. The samples for the analysis were 284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176 university professors of all over the country.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current curricula and students' needs related to home economics in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2. There were much more subjects related to home economics in woman's university than in co-ed. university.
3. Students needed such fields as follows : (1) maintenance of individual and family relation, (2) human development, (3) home management and consumer education
4. The reason why students needed the subjects was that they could be helpful to solve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5. The reason why professors needed the subjects was that they could be useful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every student.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가정학 교육을 살펴보면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실과교육에서 기능 위주의 교육을 하였고,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가정, 가사라는 교과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남녀차별적 교육이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남녀학생에게 가정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여 중등교육과정에서 가정학 교육의 비중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여 응용하는 능력과 학문에 대한 인식이 가장 성숙하는 시기인 것을 감안하여,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에 초점을 두는 가정학 교육이 교양교육과정에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에 사려깊은 관심을 기울여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일반목표가, 보편성을 띤 기본교육으로서 사회문화적 생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인격교육(김상수, 1990, 재인용)이며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망라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즉,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인간을 둘러싼 물질과 환경, 그리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 응용, 종합하는 가정학의 내용에는 교양교육의 일반목표에 부합되는 요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가정학은 대학 교양교육과정이 갖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의 대학 교양교육과정에 가정학 관련 과목의 개설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여자대학에서는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필수 또는 선택 과목의 형태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남녀공학대학에서는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개설비율이 매우 낮으며 그 대상도 여학생으로 한정짓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나 태도의 변화는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가정학 교육이 남녀 모두에게 차별없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이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고, 개설된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운영에 있어서도 가정학의 세분화된 각 영역을 요약하여 가르치거나 가정학 개론, 가정학 원론등을 가정학 전공자들에게 교양과목이라는 명칭하에 전공 기초의 의미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에 맞지 않게 실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정학을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서 일반 대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선정하고 운영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 가정학이 가지는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게 교육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매우 방대한 근접학문을 가지고 있는 가정학의 많은 하위영역이 전문화 세분화되고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하면서 가정 또한 외형적 구조 변화와 내면적 내용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의 지도적 인격을 양성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학 관련 교양교육으로 무엇이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학문의 목적이 지식의 증가와 그것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특히 가정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보아 교양교육에 적합한 내용을 적절하게 운용한다면 사회의 지도적 인격체를 기르고자 하는 대학의 목적과 대학의 일반 교양교육과정의 목적에 맞는 교양과목을 개발할 수 있고 더불어 그것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가정학의 교양교육적 측면을 살펴 보며, 그동안 대학 교양교육과정에서 실시되어 온 가정학 관련 교양교육과정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학 관련 영역과 각 영역에 따른 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가정학 전문가인 교수 집단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그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방법에 대해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른 요구에 맞추어 현재 많은 대학에서 가정학에 관련된 다양한 교양과목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을 통해 가정생활에 대한 모델교육을 대학에서 연구, 교육함으로써 개인을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육시키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자료를 통해 나타난 대학교육과정 중의 가정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의 개설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들은 가정학의 각 영역별로 어떠한 내용을 교양과목에서 배우고자 하는가?

셋째, 전문가 집단은 가정학의 각 영역별로 어떠한 내용이 교양교육과정에서 가르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째, 현재 개설되어 있는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실태와 필요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다섯째,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학생집단과 전문가 집단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여섯째,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운영방법과 수업 방식은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성격

(1)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은 서구의 자유학문적 인문교육이라 할 수 있는 “liberal education”과 대학 교육을 전문화 직업주의화 하는 경향으로부터 정상화시키고자 발전되기 시작한 “general education”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이홍우역, 1980).

교육법 시행령 제 119조에 의하면 대학의 교과중 “일반교양교과”라 함은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 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교육법전 편찬회, 1993).

이성호(1987)는 변화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의미에 대해 “교양교육은 모든 영역의 학문, 모든 수준의 사고, 모든 형태의 삶의 방식, 모든 지역의 문화, 그리고 모든 시대의 발전을 전부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서 ‘일반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므로써, 인문, 사회, 자연과학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방식을 간학문적으로 수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교육 전 과정에서 교양교육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인간과 환경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통찰력을 길러 통합된 경험과 성숙한 인격의 발달을 위한 넓은 기회를 주며, 개인의 지성과 판단력과 가치선택의 힘을 키워 주는 자유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박종철, 1986, 재인용)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는 사회의 이념이나 다양한 가치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6) 지성과 인격을 갖춘 교양인을 기르기 위한 교양교육과정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는 가정학 관련 교양교육과정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우리나라 각 대학이 밝히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전문화된 기능인으로서 보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간교육 즉, 인간성이 우선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나 우리 대학의 현실이 사회적 요구인 전문기능인 양성의 목표를 배제할 수 없음으로 해서 교양교육도 인격의 완성과 전공을 위한 기초라는 이중적 조화를 피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에 Harvard대학에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교양교육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토론 위주의 교양교육의 인식을 탈피하고 20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교육받은 ‘사람의 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교양교육에서 다음의 세가지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우주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둘째, 도덕과 윤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문화권과 다른 시대에 관하여 무지한 나머지 세계와 사물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좁거나 폐쇄되지 않아야 한다.(김광영, 1986, 재인용).

따라서,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자아 실현 및 사회에 대

한 깊은 이해와 넓은 안목으로 폭넓은 인간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편제

대학 교양교육과정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으로 특정한 교양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목적과 관련된 교과목을 엄선하여 하나의 집합체로 모아놓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수시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핵의 영역을 넓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둘째, 학문계열별 배분이수제(distribution requirement)로서 이는 특정 학문 영역에서 각각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하면서 폭 넓은 교양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통필수는 최소화 시키면서 선택의 기회를 최대로 부여하며, 특정 계열에 속하지 않는 전체 공통 선택 교양과목들을 많이 개설한다. 셋째는, 자유선택제(free electives)인데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교양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수강하므로써, 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맞추어 자신의 교육과정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배분이수제를 취해오다가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배분선택제화하는 경향이 늘어 갔으며 최근에는 중핵교육과정과 배분최저필수제를 혼합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1989년 3월에 문교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교육법 시행령 제4항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법정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교련은 폐지하고 국민윤리, 한국사, 체육 과목의 교양 지정여부는 대학의 자율로 하되 국민윤리는 계속 필수과목으로의 개설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와같은 교육과정개편으로 1989년 이후 각 대학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오던 과목들을 폐지 또는 축소시키면서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여러 교양과목들을 개발하여 새로운 과목명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2. 가정학 관련 교양교육의 필요성

가정학 교육이 교양교육적 측면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 기초교육, 생활교육 등과 관련을 가지는 보통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 및 건강한 인간교육에 가정과 교육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인경, 1989). 또한, 가정학의 성격에 간학문적이고 응용적인 면이 있으므로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생활과 근접한 환경과 관련된 것이어서 가정학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가치가 있다. 물론, 대학 교양교육의 간학문적인 성격은, 지엽적이면서도 전문화를 강조하여 세분화되는 전공교육과는 달리 인접학문의 공통 관심사를 통합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가정학이 교양과목으로서 가져야 하는 성격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학 관련과목은 대학교양과정 중에서 학생들에게 보통교육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3. 선행연구의 고찰

가정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교양교육으로서 가정학의 전체성과 그 필요도를 다룬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각 영역별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개인과 가족생활유지 영역에서는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성(gender), 낭만주의와 함께 '가족생활교육'이 있어 가족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Larson, 1988). 또한, 미래의 결혼생활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예비교육이 필요하고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는 배우자 선택, 부부관계, 순결교육, 성교육, 부모자녀관계, 이성교제순으로 나타났으며 예비교육기관으로 종교교 및 기타단체와 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하였고(송재희, 1989), 조규연(1980)도 대학에서 배우자선택, 부부관계, 부모자녀문제등을 다루는 결혼예비교육이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가르쳐져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생활에 대한 도전으로 가족폭력, 이혼율의 증

가,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의 문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에의 진출 증가, 탁아문제, 건강문제, 10대 청소년의 임신, 노령인구의 증가등을 들며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생활교육의 방향 제시에서 개인적 태도와 행위보다 사회적 체계와 힘, 경제적 구조와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 맥락에서 문제 해결 노력과 정보이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Schvaneveldt & Young, 1992).

또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사회에 대한 공공정책구성에 도움을 주고, 고령자와 젊은 세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복지를 위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Gunn, 1987). 홍은표(1986)도 노령화사회에서 노인문제는 필연적인 것으로 가족생활의 병리현상이 가족생활의 현장에 파생되어 있는 만큼 현대사회의 노인문제해결을 위해 가정학 교육을 확대시켜 여학생에게만 한정되었던 교육에서 탈피하여 남녀공통이수가 되도록 교과내용 재검토와 더불어 체계적 연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발달영역에서는, 남자대학생의 부모됨의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이전의 '아버지'역할 연구에서 보면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성격형, 인지적 능력, 성취동기의 발달에 가치있는 공헌을 하였고 아버지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아직은 가족생활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 남학생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들로부터 새로운 통찰이 얻어져야 할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Eversoll, Voss, & Knaub, 1983).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제공해야만하는 매우 복잡한 책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각 사회집단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Light & Siegfried, 1983). 그리고, 부모됨에 관한 준비는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 동시에 장차의 부모역할의 성공적 수행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유안진, 신양재, 1993). 이 영(1989) 또한 사회변천과 가정의 문제 중 자녀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부모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의 영역에서는, 대학생들의 가사노동 기여정도가 주부의 1/7정도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여도가 훨씬 높으며 또한 가사노동영역에 있어서 남학생은 주택관리, 의복관리, 가정관리의 순서이고 여학생은 식사관리, 장보기, 주택관리의 순서로 나타나 성에 따른 뚜렷한 구분이 나타났다(이정수, 1984).

소비자교육과 가정관리교육의 궁극적 수혜자는 가족과 가족구성원 개인인 소비자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고(Simpson, 1980), 사회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게 될 노령인구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나타냈다(Burton & Hennon, 1981). 소비자교육도 과거에는 금전관리와 구매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확대되었다(박혜경, 1987). 또한, 소비자교육은 개인이 소비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비자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교육이나 단순한 구매기능교육과 구별하여 학교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소비자복지 뿐 아니라 합리적 소비자 역할 수행이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개선과 애프터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이기춘, 서정희, 1992).

식생활과 영양영역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학생의 식습관은 그들의 영양지식과 높은 상관이 있고(김화영, 1984), 식생활개선은 영양교육에 의해 이루어져 영양교육의 목적은 합리적인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대학에서 가정학, 영양학을 배운 학생의 영양지식점수가 높아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강의하는 것은 대학생이 바른 영양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이현화, 1991). 이에 특히 여자대학생보다 남자대학생이 영양지식 점수와 식습관점수가 낮은 것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부재로 나타난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순영(1987)은 여대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식품영양정보를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으며, 영양지식은 식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므로 대중매체는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대학 교육과정에서 얻는 영양지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여겨진다.

위와 같이 가정학의 각 영역에서 교양교육으로써 다루어져야 할 내용과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들을 고찰하였으며 실제로는 가정학의 내용을 대학 교양교육과정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대학에서의 가정학 관련 교양교육에 대해 더욱 깊은 논의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문헌자료를 통한 실태조사

각 대학에 개설된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대학요람을 조사하여 학교별, 영역별, 과목명, 학점과 시간수 등을 분석하고 관련대학 및 학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대학생용 질문지와, 전문가(교수)용 질문지의 두가지로서 가정학의 영역을 여섯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대학수준의 교양교육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문헌연구를 통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것들을 8가지씩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대학원생 및 교수)의 조언을 얻어 안면타당도가 있는 측정도구를 작성하였고, 1994년 2월 예비조사를 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나타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제거하였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남녀공학대학 6개교, 여자대학 6개교의 남녀대학생 284명과, 대학요람을 통해 성명과 전공이 파악된 가정학 관련 과목 전공

교수(가정학 관련학과에 재직 및 강의) 176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4.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방법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이용하였고 대학생에게는 직접 전달하여 답하게 했으며, 전문가(교수)에게는 반송용 봉투를 동봉, 우편회수법을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1994년 3월 30일 부터 4월 25일로 하였다. 대학생용 질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여 287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하게 기재된 3부를 제외하고 284부를 통계처리했으며, 전문가(교수)용은 전공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총 400부를 보내 176를 회수하여 통계처리했다.

자료처리방법은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개설 실태와 운영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학교별로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 개설 실태와 운영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1-1〉의 영역별 개설강좌수를 보면 전체 53개

대학중 18.9%에 해당하는 10개의 여자대학에서 전체 교양과목 개설 강좌수의 47.4%에 해당하는 74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공학대학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영역중에 가장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영역은 식생활과 영양영역으로 전체 개설 강좌수의 31.4%에 해당하는 49개 강좌였는데, 이것은 남녀공학대학(32.9%)이나 여자대학(29.7%)에서 모두 가장 높은 개설률을 나타냈다.

식생활과 영양영역 다음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는 영역으로는 여자대학에서 의생활영역(21.6%), 인간발달영역(16.2%)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녀공학대학에서는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영역(13.4%), 개인과 가족관계유지영역, 인간발달영역(9.8%)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개설률을 나타낸 강좌의 영역은 대학의 형태와 관련없이 주생활영역(2.6%)이었다. 이것을 1982년에 이루어진 미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Crockett & Bennett, 1985), 총 29개 대학에서 가정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으로 165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아동발달과 가족관계영역 34.4%, 식품영양영역 21.4%, 디자인영역 10.4%, 소비자관련문제 10.4%, 직물, 의류와 디자인의 역사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결과에서도 개인과 가족관계유지영역과 인간발달영역을 합하면 37개 강좌로 전체의 23.7%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큰 비중

〈표 1-1〉 영역별개설강좌수

영역	%(N)					
	남녀공학대학		여자대학		전체	
	대학	강좌	대학	강좌	대학	강좌
개인과 가족관계유지	(8)	9.8 (8)	(7)	12.2 (9)	(15)	10.9 (17)
인간발달	(8)	9.8 (8)	(7)	16.2 (12)	(15)	12.8 (20)
식생활과 영양	(24)	32.9 (27)	(9)	29.7 (22)	(33)	31.4 (49)
의생활	(5)	6.1 (5)	(8)	21.6 (16)	(13)	13.5 (21)
주생활	(2)	2.4 (2)	(2)	2.7 (2)	(4)	2.6 (4)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	(10)	13.4 (11)	(5)	8.1 (6)	(15)	10.9 (17)
가정학 원론(개론)	(7)	8.5 (7)	(2)	2.7 (2)	(9)	5.8 (9)
기 타	(11)	17.1 (14)	(5)	6.8 (5)	(16)	12.1 (19)
계	(43)	100.0 (82)	(10)	100.0 (74)	(53)	100.0(156)

조사대상 (N=53개교)

을 차지하는 두가지 영역이 서로 뒤바뀐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표 1-2〉 전공영역별 교수분포(전임강사이상)

전공영역	%	(N)
개인과 가족생활유지	6.7	(30)
인간발달	10.2	(46)
식생활과 영양	33.6	(151)
의생활	32.5	(146)
주생활	5.6	(25)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	11.4	(51)
계	100.0	(449)

조사대상 (N=47개교)

다음 〈표 1-2〉의 전공영역별 교수분포표를 보면 식생활과 영양영역과 의생활영역에 해당하는 전공교수의 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공영역별 교수분포와 교양과목의 개설영역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어, 필요도에 의한 강좌 개설과 함께, 개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즉, 강의를 할 수 있는 전공자가 전임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설되어 있는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학점 및 시간의 조사결과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3학점 3시간이며, 그 다음이 2학점 2시간이었는데, 이것이 전체의 98.6%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거의 다 2학점 내지 3학점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가정학관련 교양과목은 일반 교양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2.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필요도 분석

(1) 집단별 영역 및 내용 필요도와 차이 비교

〈표 2-1〉에 나타나있듯이 하위영역으로 나눈 6가지의 영역에 걸친 요구도를 보면 대학생집단에서 개인과 가족관계유지영역, 인간발달영역,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식생활과 영양영역, 의생활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대학생의 가정학 전 영역의 필요도 및 순위

영역	대학생(N=284)		순위
	M	SD	
개인과 가족관계유지	30.22	4.77	1
인간발달	30.06	4.73	2
식생활과 영양	27.52	5.02	5
의생활	26.03	4.90	6
주생활	28.68	4.50	4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	29.20	5.23	3

각 영역별 주요내용을 8개씩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필요도를 5점 척도로, '매우 필요'에 5점, '매우 불필요'에 1점을 주어 각 영역별 최고의 필요도에 해당하는 수치는 40점이다. 여기에서 전문가(교수)집단의 전 영역 필요도를 비교하지 않은 이유는 각 영역을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에게만 질문하였으므로 평균점수와 순위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표 2 2〉부터 〈표 2-7〉까지는 가정학의 각영역에서 기본 내용으로 선정한 8가지에 대해 필요도를 분석한 것이다. 대학생 집단과 전문가(교수)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 것은 평균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선정된 순위와 평균점수의 정도비교에 더욱 의미가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의 소비자인 대학생이 요구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직접 구성하게 되는 전문가(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아 교양교육과정 개발에 이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각 영역에 따라 내용별로 필요도를 보면 위 〈표 2-2〉의 개인과 가족관계유지영역에서는 대학생 집단은 성, 성행동, 성역할, 이성교제, 배우자선택, 결혼,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이해 순이었고, 교수 집단에서도 순서는 조금 다르나 위의 세가지 내용에 매우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위의 세가지 내용은 대학생에게서도 높은 평균치를 보였지만 교수집단에서는 특히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표 2-3〉의 인간발달 영역을 보면 대학생에게서 필요도가 높은 것은 자녀양육기술, 부모교육,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이해의 순으로 나타나

〈표 2-2〉 개인과 가족관계유지영역의 내용별 필요도

내 용	대학생(N=284)		교수(N=25)		
	M	SD	M	SD	t
가족관계의 이해	3.95	1.10	4.92	0.28	4.38***
성, 성행동, 성역할	4.10	0.88	4.60	0.82	2.75**
이성교제, 배우자선택, 결혼	4.09	0.97	4.71	0.47	3.11**
가족관련법률문제의 이해	3.67	1.01	4.00	1.06	1.52
특수한 개인, 가족의 이해	3.62	0.97	3.96	0.89	1.68
가족과 사회문제, 가족상담	3.77	0.98	3.92	1.02	0.72
가족정책과 가족복지	3.58	0.98	3.60	1.16	0.09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치관	3.40	1.10	3.83	0.96	1.87

** p < .01, *** p < .001

〈표 2-3〉 인간발달영역의 내용별 필요도

내 용	대학생(N=284)		교수(N=24)		
	M	SD	M	SD	t
인간발달의 기초와 이론	3.08	0.99	4.04	1.04	4.57***
임신과 출산과정의 이해	3.76	1.00	4.13	0.80	1.76
부모교육	4.00	0.92	4.75	0.53	3.95***
자녀양육기술	4.10	0.97	4.25	0.79	0.74
아동발달단계와 부모역할	3.90	1.00	4.13	0.80	1.08
청년기의 발달특성 이해	3.88	1.00	4.13	0.85	1.17
성인기 및 노년기 특성이해	3.47	0.97	4.29	0.69	4.04***
인간발달과 사회문제	3.89	0.98	4.13	0.85	1.16

*** p < .001

〈표 2-4〉 식생활과 영양영역의 내용별 필요도

내 용	대학생(N=284)		교수(N=45)		
	M	SD	M	SD	t
인체와 영양에 대한 이해	3.28	0.97	4.27	0.81	6.23***
인생주기별 영양관리	3.49	0.99	4.32	0.82	5.14***
특수영양과 식이요법	3.79	0.91	4.00	0.95	1.40
인체영양과 건강유지법	3.69	1.00	4.39	0.70	4.45***
식품의 선택과 활용	3.43	0.95	4.37	0.86	5.94***
식품조리의 원리	2.94	0.96	3.54	0.87	3.78***
식품안전과 위생	3.45	1.00	4.07	0.96	3.73***
식생활과 문화	3.46	1.11	4.00	0.89	2.98**

** p < .01, *** p < .001

〈표 2-5〉 의생활영역의 내용별 필요도

내 용	대학생(N = 284)		교수(N = 44)		
	M	SD	M	SD	t
복식과 문화	2.53	0.93	3.96	0.92	9.62***
복식의 유행현상	3.11	1.10	3.78	0.74	3.89***
복식디자인의 원리와 응용	3.58	1.09	3.76	0.87	1.10
의복과 사회심리적 행동	3.31	0.99	3.65	0.88	2.20*
의복의 취급및 관리	3.57	0.91	3.52	0.94	0.31
기성복의 선택방법	3.66	0.98	3.87	0.89	1.39
한국전통복식에 관한 이해	3.13	1.07	3.67	0.94	3.23***
피복의 재료와 특성 이해	3.10	1.04	3.37	0.93	1.67

* p < .05, *** p < .001

〈표 2-6〉 주생활영역의 내용별 필요도

내 용	대학생(N = 284)		교수(N = 10)		
	M	SD	M	SD	t
주거의 유형과 선택	3.44	0.98	4.50	0.97	3.38***
주거안전과 위생	3.44	0.94	4.30	0.68	2.87**
실내디자인 및 생활공간활용	4.03	0.87	4.30	0.68	0.97
가구선택, 배치와 시설설비	3.85	0.94	4.00	0.47	0.49
주거와 심리사회적 영향	3.51	1.00	4.00	0.94	1.53
효과적 주거자원관리, 환경	3.51	0.99	3.70	1.06	0.59
미래의 주거	3.38	1.00	4.10	0.74	2.22*
한국의 주택정책과 관리	3.55	1.11	4.20	0.63	1.83

* p < .05, ** p < .01, *** p < .001

〈표 2-7〉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영역의 내용별 필요도

내 용	대학생(N = 284)		교수(N = 28)		
	M	SD	M	SD	t
가족자원관리	3.31	1.02	4.04	1.19	3.48***
가족자원의 활용	3.46	0.96	3.74	0.94	1.44
가사노동관리	3.42	1.08	3.81	1.04	1.83
가정경제와 가계관리	3.72	1.02	4.19	0.83	2.27*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3.57	1.01	4.44	0.58	4.39***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3.87	0.97	4.33	1.04	2.37*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4.08	0.95	4.04	1.10	0.20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복지	3.78	1.01	3.63	1.1	0.75

* p < .05, ** p < .01, *** p < .001

부모됨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발달의 기초와 이론'의 내용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 교수집단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대학생집단이 이론적인 접근보다 실제적인 내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생집단 자신이라 할 수 있는 청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에는 관심이 많으나 성인기와, 노년기에 대한 필요도가 교수집단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가 아닌 경우 필요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식생활과 영양영역에서는 교수집단과 대학생의 필요도의 정도 차이가 심했다. 대학생은 특수영양과 식이요법, 인체영양과 건강유지법, 인생주기별 영양관리의 순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였는데 교수집단에서는 이외에도 식품의 선택과 활용이라는 내용에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 대학생집단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의생활영역을 보면 대학생집단과 교수집단의 필요도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로하는 내용의 순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기성복의 선택방법, 복식디자인의 원리와 응용, 의복의 취급 및 관리등이 높은 순위에 있는데 반해 교수집단에서는 복식과 문화, 복식의 유행현상등에 높은 필요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생활영역을 보면 주거의 유형과 선택, 주거안전과 위생에 대한 내용이 교수집단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였지만 대학생들은 실내디자인 및 생활공간의 활용, 가구의 선택 및 배치와 시설 설비에 대한 내용에서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영역에서의 필요도는 대학생들에게서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복지의 내용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다.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내용은 교수집단에서는 아주 높은 필요도를 보였지만 대학생집단에서 가장 낮은 필요도를 보여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복지에 대한 필요도는 교수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대학생집단에서는 높은 순위

에 들어있었다.

(2) 영역별 필요이유와 차이 비교

먼저 개인 및 가족관계유지영역의 필요이유와 차이를 보면 대학생과 교수집단 모두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생활의 중요성이 증가하므로'를 첫째 이유로 한 것은 일치하나 '미래의 가정생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에 대해서는 교수집단에 비해 대학생집단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인간발달영역, 식생활과 영양영역, 의생활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미래의 생활설계에 대해 교수집단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각 영역별 표생략)

인간발달영역에서는 두 집단간의 인식차이에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필요이유에 대해 대학생집단에서는 '가정내에서 인간발달의 특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 반해 교수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과 순위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가르치게 될 내용과 필요하여 배우고자하는 내용이 불일치하므로써 문제가 발생할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가 집단은 피교육자의 요구도를 사전에 알아 그에 알맞으면서도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개발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식생활영역과 의생활영역의 필요이유와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 또한 실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주요 원리를 습득하여 합리적 생활 태도를 지니고자하는 경향이었지만 미래의 합리적 의생활, 식생활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에는 교수집단에서만 필요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생활영역에서는 대학생들의 필요이유가 실제의 문제점 해결과 함께 미래의 합리적 주생활설계에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주생활영역은 가정내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영역에서는 기본지식의 습득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운영방법(표생략)

강의내용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경우 요구도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강사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길 바라는 것에 많은 응답(64.7%)을 했으나 교수의 경우에는 이것(49.1%)과 더불어 요구도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공통내용을 정해 강사에 의한 차이가 거의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42.7%)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강의담당자 선호도 차이에서는 대학생집단에서는 관계없음(43.2%), 본대학 전임교수(36.4%), 시간강사(17.4%)의 순서로 선호했으나 교수집단에서는 본대학 전임교수(52.0%), 관계없음(39.9%), 시간강사(5.2%)의 순서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교수집단에만 강의방식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를 보면, 가정학 전영역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위해 전공이 다른 교수들이 team teaching으로 강의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43.9%), 각 영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한 과목에서 한 영역만 집중적으로 강의해야 한다가 그 다음이었다(30.5%). 또한 각 영역별 내용은 간략하게 다루고 전체를 광범위하게 소개하는 개론식 강의도 19.5%의 비율로 선호하였다.

교양과목의 강의경험이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 질문에서는 다양한 연령, 전공의 학생이 혼합되어 내용 이해 수준이 다를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39.7%), 수강인원이 너무 많아 질적인 수업이 어려웠다는 것을 다음으로 지적했다(20.6%). 이는 현재 우리나라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학점수와 시간수 부족으로 깊이있는 내용을 못 다룸'(14.3%), '교육내용을 포괄하는 표준화된 주교재가 없어 어려움'(11.4%)의 순이었다.

(4)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 수강학생의 만족도 조사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이유를 분석한 결과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많고 '부담없는 내용'이고 '평소에 관심이 많던 분야라서'의 순이었다. 이는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이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경향은 내용 만족이유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는 것과 일치하여 수강 전과 후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다음 이유로는 '관심있던 내용을 더 잘 알게 되서', '미래생활 설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순이었다.

내용불만족 이유로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학문적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의 반복이라'를 꼽은 것도 수강이유와 부합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강 후 전체적인 만족이유에서 가장 우선 순위인 것은 '강의 형태나 과제가 부담이 없어서'라고 나타나 대학생들이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물론 그 다음으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가지게 되었거나 많은 지식을 습득한 것 같다고 응답을 하였지만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전체적 불만족 이유는 '대단위 수업이라 집중이 안 되어서', '보다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하여서'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강의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과 일치하고 있어 교양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라고 생각된다.

(5) 교양과목 개설시의 영역별 과목명

가정학 전문가(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중에서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교양과목 개설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명을 자유기술식으로 답하도록 한 것의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양과목이 무엇인지 그 경향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의 <표 5-1>과 같다.

타났다. 이러한 영역별 강좌 개설 비율은 대학 전입

<표 5-1> 교양과목 개설시의 영역별 과목명

영역	최다응답	다수응답	기	타
개인과 가족관계 유지영역	결혼과 가족 (결혼과 가정, 결혼과 가족관계)	가족과 사회, 가정과 사회, 가족관계	현대사회와 가정, 여성과 가정, 가족복지학, 가족문제론, 사랑과 성, 가족과 환경	
인간발달영역	인간발달 (인간발달의 이해), 부모교육	청년발달, 노인학	성인발달, 성인발달과 가족,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론, 인간과 성, 성의 발달	
식생활과 영양영역	영양과 건강 (건강과 영양) 식생활과 건강 (건강과 식생활)	현대인과 영양, 현대인의 영양, 식품과 영양	식생활과 문화, 식품학, 식품학개론, 영양학개론, 인체와 영양, 건강생활, 식품영양과 건강, 식품과 현대생활, 식품의 선택과 조리, 대학생을 위한 영양교육, 산업사회와 식생활	
의생활영역	복식과 문화 (복식과 사회문화)	인간과 복식 (인간과 의복), 현대인과 의생활	현대사회와 복식, 의복과 사회, 생활의복의 이해, 패션과 생활, 의생활관리, 의류학 탄색, 의복과 심리, 현대사회와 패션	
주생활영역	주거와 환경 (주거환경론)	주거와 문화 (주생활문화)	한국인의 주생활, 주거학, 한국의 주거문화론, 주거와 인간, 주거와 가족, 현대생활과 주거	
가족자원 관리와 소비생활영역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 교육론 (소비자학 개론) 가족자원관리 (가정자원관리)	소비자문제론, 현대사회와 소비, 현대사회와 소비자 선택, 가격관리, 가정자원관리와 환경, 생활자원관리, 가정경영과 자원활용, 현대 가정의 경영, 가정생활설계, 자원관리와 의사결정, 사회변화와 가정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첫째, 전국 대학의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의 개설 실태를 문헌 자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53개교에서 156과목에 해당하는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특히 조사 대상 학교 중 18.9%를 차지한 10개의 여대에서 전체 156강좌의 47.4%에 해당하는 74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 대학의 형태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교양교육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남녀차별적인 교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역별로 개설이 많이 된 강좌를 살펴 본 결과 식생활과 영양영역, 의생활영역, 인간발달영역의 순으로 나

교원 수의 전공별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 대학생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영역별로 개인과 가족관계유지영역, 인간발달,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정학이 인간을 둘러싼 물질과의 상호작용 측면-의식, 주-에 중점을 두었던 단계에서, 점차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각 영역별 내용으로는 1. 개인과 가족관계유지영역-성, 성행동, 성역할, 이성교제, 배우자선택, 결혼 등, 2. 인간발달영역-자녀양육기술, 부모교육 등, 3. 식생활과 영양영역-특수영양과 식이요법, 인체영양과 건강유지법 등, 4. 의생활영역-기성복의 선택방법, 복식디자인의 원리와 응용 등, 5. 주생활영역-실내디자인 및 생활공간활용, 가구선택배치와 시설 설비 등, 6.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영역-소비자 상담과 피해구

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보다 많은 필요도를 나타내었다. 상위에 선정된 내용을 보면 대학생들의 생활 경향이 드러나 각 영역별로 주요한 원리나 개념을 먼저 알고자 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맞추어질 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뚜렷했다.

세째, 가정학 전문가(교수)집단이 영역별로 필요하다고 선정한 내용으로는 1. 개인과 가족관계유지 영역-가족관계의 이해, 이성교제, 배우자선택, 결혼 등, 2. 인간발달영역-부모교육, 성인기 및 노년기의 특성이해 등, 3. 식생활과 영양영역-인체영양과 건강유지법, 식품의 선택과 활용 등, 4. 의생활영역-복식과 문화, 기성복의 선택방법 등, 5. 주생활영역-주거의 유형과 선택, 실내디자인 및 생활공간활용 등, 6.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영역-소비자 구매의사 결정,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이었다. 이들 중 특히 밑줄 친 내용들은 대학생 집단의 필요도에서는 하위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전문가(교수)집단에서는 상위로 선정된 내용이어서 차이가 난 내용이었다.

네째, 현재의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 개설 실태와 질문지 분석 결과 나타난 필요도와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 편이었다. 위의 첫째와 둘째의 내용을 합하여 보면 실태와 요구도 차이를 알 수 있는데, 필요도가 높은 영역은 개인과 가족관계유지, 인간발달,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의 순이었으나, 가장 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 영역으로는 식생활과 영양, 의생활, 인간발달의 순이었다. 따라서 필요도가 높지만 아직까지 요구도 충족이 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양과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다섯째, 영역별로 대학생 집단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왜 배우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1. 개인과 가족관계유지영역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생활의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2. 인간발달영역-가정내에서의 인간발달 특성 교육이 미비하므로, 3. 식생활과 영양영역-관련 지식 습득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4. 의생활영역-의생활에 대한 합리적 태도를 지니려고, 5. 주생활영역-실제의 주생활 관련 문제점 해결과 미래의 주생활

에 도움이 되기 위해, 6. 가족자원관리와 소비생활영역-실제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보면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것이 많았고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필요도와 이유를 나타냈으나 예외적으로 주생활영역에서만 미래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이유가 문제 해결과 비슷한 비율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학생의 현재 주거생활에서는 본인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전문가(교수)집단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를 보면, 각 영역별로 대학생 집단과 같은 이유를 많이 지적했으나 이와 함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래생활에 도움이 될 것임으로'와 각 영역별로 '개념, 원리 등을 알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는 이유가 모두 높게 나와 교육을 시키는 집단의 이유와 교육을 받는 집단의 이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두 입장이 모두 충족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가정학 관련 교양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과 문제점의 파악을 통한 방향모색을 함께 하였는데, 내용선정방식은 대학생이나 교수집단 모두 요구도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강사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으나(대학생-64.7%, 교수 49.1%) 교수집단은 요구도가 많은 것을 중심으로 공통내용을 정해 강사에 의한 차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비슷하게 많아(42.7%)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선 특히 교수집단이 교양과목 강의 경험에서 느낀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의담당자 선호도는 교수집단에서 '본대학 전임 교수이어야한다'가 52.0%로 가장 많고, 대학생의 경우 '관계없음'의 비율이 43.2%로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교수집단이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 강의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교수집단만을 대상으로 강의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정학 전영역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위해 진

공이 다른 교수들이 team teaching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43.9%). 따라서 가정학에서 연구가능하고 시도하여 볼 만한 학제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교양교육과정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제 언

우선적으로 가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가정학 및 가정학교육의 성격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요소가 많음을 더욱 연구하여 이론적으로 튼튼한 바탕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학 수준에서 일반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을 개설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으며 따라서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전공과목의 예속이라는 개념의 교양과목 개설은 지양해야 한다. 교양과목은 교양이라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에 따라 가정학의 교양교육적 요소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가정학자들 뿐 아니라 인접 과목의 전문가,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가정학을 중심으로 간학분적 교양과목을 개발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제안한다. 가정학 자체에도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교수 수급에 관한 문제로써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이 그 대학내에 가정학관련 학과가 있는 곳으로 거의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교양교육과정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양교육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대학의 행정편의상 강의할 수 있는 전임교수가 있어야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특히 관련 학회차원의 연구위원회가 조직이 되

어 전문적,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각 대학 요람

- 1) 교육법전편찬회(1993).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 2) 김광익(1986). 외국대학의 교양교육. 대학교육. 제 22권. 38-45.
- 3) 김화영(1984).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7권 3호. 178-184.
- 4) 노미정(1988). 성인남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박종철(1986). 한국 대학 교양교육체제의 변천. 대학교육. 제22권. 26-37.
- 6) 박혜경(1987). 소비자교육론. 서울 : 수학사.
- 7) 송미섭 역(1994). 교양교육의 개혁. 서울 : 민음사.
- 8) 송재희(1989).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유안진, 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역할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1권 4호. 141-155.
- 10) 윤인경(1989). 가정과교육의 발전적 탐색. 한국 가정과교육학회 제1차 학술대회집.
- 11) 이기춘, 서정희(1992).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소비자교육의 강화 방안 : 소비자교육 관련 교과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2호. 237-247.
- 12) 이성호(1987). 대학교육과정론.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 13) 이 영(1989). 사회변천과 가정-자녀문제.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2호. 217-219.
- 14) 이정수(1984). 대학생의 생활행동의 시간적 분석-가사노동의 기여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1호. 187-201.
- 15) 이현화(1991). 남녀대학생들의 식생활양상 및 식의식 인식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 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홍우 역(1980). *윤리학과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17) 장순영(1987). 여대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호성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조규연(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6). *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논총 :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과 그 발전방향*. 자료 제86-2-28호.
- 20) 홍은표(1986). 현대사회의 노인 문제와 가정과 교육의 좌표. 수원대학논문집(제4권), 491-501. 수원대학논문편찬위원회.
- 21) Brown, M. & Paolucci, B.(1979). Home Economics : A Definition.
- 22) Burton, J.R., & Hennon, C.B.(1981). Consumer Education for the Elderly, *Journal of Home Economics* : 73(2). 24-28.
- 23) Crockett, S.J., & Bennett, C.M.(1985). Home Economics Leadership in General Education Reform. *Journal of Home Economics* : 77(3). 32-34.
- 24) East, M.(1980). *Home Economics-Past, Present, and Future*, Boston : Allyn & Bacon, Inc.
- 25) Eversoll, D.B., Voss, J.H., & Knaub, P.K.(1983). Attitudes of College Males toward Parenthood Tim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 75(4). 25-29.
- 26) Gunn, B.A.(1987). Public Policy for an Aging Society : The Case For Proactiv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 78(3). 55-59.
- 27) Larson, J.H.(1988). The Marriage Quiz :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elected Myths about Marriage. *Family relations* : 37. 3-11.
- 28) Light, H., & Siegfried, B.(1983). A Community Alliance for Parenting Edu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 75(1). 16-18.
- 29) Schvaneveldt, J.D., & Young, M.H.(1992). Strengthening Families : New Horizons i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Relations* : 41. 385-389.
- 30) Simpson, E.J.(1980). Implications for Home Economics. *Journal of Home Economics* : 72(1). 18-19.